

데스크



조상운 편집국장

수신제가(修身齊家)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 몸을 닦고 집을 안정시킨 후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정한다는 뜻이다.

을 닦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다. '수신제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다.

선택을 받기에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른바 도내에서 높다면 높거나 아니면 그 분야의 수장이랄 수 있는 '장(長)'이라는 자리에 앉히려는 사람과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들이 눈총을 받고 있다.

문다. 능력이 충분하든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아 제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열린마당

안녕하세요 여기는 청림1번지입니다



고경아 서귀포시 표현선사사무소

독서통신교육, 전화 외국어, 정보화교육 등 무료교육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뉴스-in

원희룡 지사 대권 주자론 '술술'

공식 입장 표명 시기 관심 ○...2년도 채 남지 않은 차기 대통령 선거의 보수 야권 주자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존재감 부각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

정을 통한 분야별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전부서가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라 비사업부서는 항목별로 몇 십만원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

사설

BCT 파업 장기화, 더 이상 끌면 안된다

제주지역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전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파업에 돌입한 지 한달 반이 넘었습니다.

맞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공사가 멈춰선 건설현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청객' 팽생이모자반 더 세밀한 대응을

제주 연안이 매년 밀려드는 팽생이모자반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해마다 4-5월 관측되는 팽생이모자반은 중국에서 해류에 의해 제주로 유입, 연안에 심한 악취와 함께 선박 사고 우려까지 제기되는 골칫덩이입니다.

거·처리 전반에 더 총력전으로 나서야 할 이유입니다. 현재 팽생이모자반 수거는 제주도의 요청으로 정부지원 선박 5척 투입과 해경의 항공예찰 강화, 유관단체 인력 지원 등으로 이뤄지다가 하면 처리는 퇴비사용을 희망하는 농가에 무상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김홍철(한국씨티은행 전산기획부) 아버지 김해김공 군진(향년 81세)께서 서기 2020년 5월 28일 10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동래정씨 김번(향년 87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한라일보가 대 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금매 품목: 운석 1점, 감정가: 20억원, 조건: 매매 또는 대물교환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